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6~17

2007 여름 단기선교 파송식 온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진행될 사랑의 행진

2006년 7월 23일 3부 예배시 단기선교 파송식이,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팀원들을 축복하고 있다.



우리교회 '2007년 여름단기선교팀'의 파송예배가 오늘 3부예배로 드려진다. '사랑의 행진,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사도행전1:8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출발할 단기선교팀은 장년부 70여명과 청년부 50여명, 아동, 중등부 40여명(총 160여명)으로 구성되어 캄보디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유럽 등을 돌며 선교현지를 품에 안을 것이며 필요한 영역의 사역을 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7월 15일 중국 남양지역을 출발점으로 총 11개팀이 8

월 17일까지 탐방, 어린이사역, 우물파기사역 및 선교사자녀사역 등 현 지역의 필요에 맞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팀이 지난 주일부터 7월 7일 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단기선교에 필요한 지식 및 사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을 힘입어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도울 사랑의 행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기대한다.

정희성 목사

오늘은 임직자 선거일!

투표참여는 교회사랑입니다.

2007 임직자 선거 1차 투표가 오늘 1일, 2차 투표가 8일에 이루어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회를 섬길 장로 10명, 안수집사 30명, 권사 30명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시 유의사항

- 투표장소에 가기 전에 게시판과 후보 공천자 명단을 참고하여 기표할 후보를 미리 확정하여 오면 정확하고 신속한 기표를 할 수 있다.
- 정신이고 본관 1층 투표소에 도착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인한다.
-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1장 받는다.

- 만일 선거인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 교적카드를 작성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기표소에서 장로는 10명까지, 집사와 권사는 각 30명까지 기표한다.
- 제한인원 이상 기표하면 무효처리된다.
-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OMR용지의 후보이름 옆의 동그라미(O)안에 검게 표기(●)한다. 본인이 소지한 다른 필기구로는 기표할 수 없다.
- OMR용지에 물이 묻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손에 물기를 제거하고 기표한다.
- 다른 후보에 잘못 기표한 경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정테이프(흰색)로 지운다. (X표기는 기표한 것으로 인식된다)
- 건강 상의 이유로 OMR카드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투표도우

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OMR용지는 절대로 접지 말고 투표함에 넣는다.

2007년 임직자선거 1차투표용지 (2006. 7. 2)	
1. 반드시 주일교회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잘못 접지 않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후보	기표
이름	표
1	홍길동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로렘 나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2:42)

목사님의 주일 설교의 말씀 중의 일부이다.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동안 초대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보려고 했던 것 같다.(행2:43-45)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크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셨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신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속4:6)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집사(4-22)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사43:1-3, 롬1:1-7)

제 마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실한 알곡이 되도록 돕는 소망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한 자기 인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늘 하는 인사와 별 차이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형식에 숨겨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은 물론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나 자신의 정체, 직업 그리고 소망은 내가 가진 신앙 즉,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거나 잘 못 나타내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 자기 자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부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자신의 직업은 사도이며 그의 소망은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이지만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학파였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는 유대교 최고의 기관의 직책을 맡았지만, 그의 진정한 직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고, 진정한 직책이고,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자신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세운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개발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업, 나의 인간관계,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발견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입학식 날 주어진 과제는 “종교적 지도력과 인격의 타입”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목회의 모습, 영역, 능력도 자기 정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막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의 사도로, 정죄의 삶

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소망과 결단은 예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은사도, 자신의 삶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지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택정 하심에 대한 헌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사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지미 카터를 존경합니다. 제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미국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결단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 직무시절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주일 학교 교사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직도 믿음에 따라 행했고 퇴임 후에도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목수 되신 주님을 따라서 집 짓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나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직업은 주님을 닮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요 소망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는 목사도 얼마든지 주님을 닮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세속화 되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나됨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닮는 것이라는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직업은 소명입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은 직업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직업은 결코 살기 위한 수단이나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신앙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를 닮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는 예수의 사도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들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 땅의 사도들이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죄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

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용서의 은총을 얻을 수 없었고 율법을 알수록 죄에 대한 고통과 이웃에 대한 정죄만 더해 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교회로 부임한다고 하자, 여러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회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목회철학이 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알고 성도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실한 알곡이 되도록 돕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수고가 바로 이 때문이었고, 앞으로의 목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소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제게 다가온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게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43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소망에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담임목사부임예배

6월 17일, 주님의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박원호목사가 부임했다. 9개월 동안 새로운 담임목사의 부임을 기다린 성도들은 예배를 마친 후 담임목사와 인사하며 감사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 ① 영سال로 찬양대의 축하
- ② 부임 설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 ③ 예배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6월 20일, 호산나찬양대 주관으로 주님의교회 19주년 기념 음악예배가 열렸다. Euterpe 목관 사중주단,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그리고 소프라노 이혜정집사가 협연했다.



- ① 피날레를 장식한 연합찬양
- ② 박수로 화답하는 성도들

창립 19주년 기념 음악예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니”

본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예배와 행사들의 사진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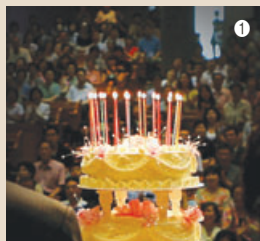
-사진 노수연 집사, 정원영 안수집사

19th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6월 24일, 3부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단 중앙에는 19개의 초가 켜진 케이크가 등장했고 온 성도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큰 박수소리로 대예배실을 가득 메웠다.

- ① 생일 케이크 촛불 점화
- ② 생일 축하노래를 부르는 성도



6월 24일, 주님의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의 임직식이 4부예배시간에 진행되었다. 장로 6명, 집사 35명 권사 37명이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했다.

- ① 담임목사가 최장암 투병중인 박해숙 권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 ② 임직을 받은 장로·안수집사·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로 임직식



- ① 설교전 기도하는 박원호 목사
- ② 임직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안수집사
- ③ 창립음악회에서 독창을 맡은 소프라노 이혜정 집사
- ④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새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유치부
소식

유치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여
러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
데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
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제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교회에서 함께 섬김
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교

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섬길 부서는
유치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치부
사역의 가장 큰 저의 목회
계획은 바로 새싹과 같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님의교회에서 이러한 목회
철학을 토대로 열심히 섬기
겠습니다.

전재표전도사



교회생활 이모저모

교사수련회 도자기 공예품

사진은 5월 24일 교육
부 주최로 열린 교사
수련회에서 교사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 공예품이다.

교사들의 작품은 지난주부터 4층 엘리베이
터 앞에서 전시중이다. 활동에 참여한 교사
들은 본인 작품을 확인 한 후 찾아가면 된
다.



어와나 게임즈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지난 6월
6일 경기도 평택 이충 문화센
터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어와
나 게임즈에 참여했다.



(단기선교팀) 단기선교준비모임



선교사역본부에서는 7월7일까지 토요일
마다 4차례에 걸쳐 단기 선교의 도전과 열

매, 이론과 실제, 효과적인 전도법, 타 문화
권에 대한 이해와 그들과 의사소통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6월 23일 첫 시간은 파키스탄에서 10여년
을 선교하신 정 마태오 선교사가 선교에서
필요하고 주의해야할 일들에 대한 여러 주
의사항을 전해주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분에게는 열정을,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부
탁했다

신형섭 기자

30CUP 여름 수련회

6월 9-10일 양평 십자수기도
원에서 열린 30CUP수련회는
2007 여름수련회의 첫 신호탄
이 되었다.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
인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Misson 함줄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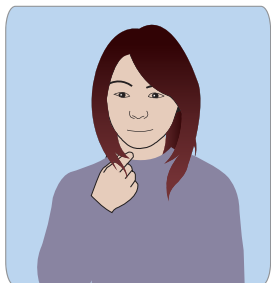
경기를 진행 시키다(X)
경기를 진행 하다(O)

한 경기에서 경고를 두 번 받
으면 퇴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에서 경고 카드 3장을 받
고서야 퇴장당한 일이 있었습
니다. 이 뉴스를 다루면서 거
의 모든 기사에서, "심판의 실

수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 또는 하게 만
들다"라는 뜻으로, 인부에게 일을 시키다,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들에
게 청소를 시키셨다처럼 씁니다. 경기에서 심판은 운동선수에게 경
기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마치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 경기 진행을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
면 안 됩니다.

이정애기자



원하다(~고 싶다) [want, wish]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펴 목에 댄 후,
앞으로 당겨 붙이면 원하다 란 뜻이랍니다



나쁘다 [bad]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검지를 펴 코 옆에 댄 후,
왼쪽으로 스쳐 내리면 나쁘다 란 뜻이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줄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시는 분은 hamnews2006@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줄함울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원고 내용: 작은 사건이나 생각속에서 발견한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A4 1/4 분량

문의: 김기용 안수집사 010.9600.2664

농어촌 선교팀
지원교회 방문

“함줄함울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농어촌 선교팀에서는 조성득 팀장
을 포함한 12명이 6월 22일과 23일, 1
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지역의 지
원 교회를 방문했다. 예수원에서 일박
을 하고 아침 6시 예배를 드리며 시작
된 일정은 태백의 삼수령 목장과 함백
의 낙원 교회, 정선의 나전 중앙 교회,
홍천의 화방교회를 방문하여 선포기
와 가방 그리고 헌금을 전달했다.

교인이 7명뿐이라는 나전 중앙 교
회의 안타까움도 있었으나 낙원 교회
의 야생화가 핀 넓은 산구릉에 복지관
을 짓겠다는 비전이나, 삼수령 목장의
함줄함울(소 이름)이 이미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고, 올 11월에 또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변성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듯하여 기뻐다.

'네 번째 강' 이
라는 프로젝
트를 가지고
통일 후를 바
라보며 노동
학교를 통하
여 준비된 하
나님의 백성
을 찾으려 하
는 삼수령 목
장에서 바라

본 우리 산의 능선 들은 보이지 않는
네 번째의 영적 강줄기였다.

기사제공:농어촌선교팀

